

植民地下 勞働者 階級の 形成과 再生産 研究

- 本源的 蓄積과 관련하여 -

朴 永 九*

< 目 次 >

I. 머리말	IV. 植民地下 勞働者階級の 形成과 再生産
II. 本源的蓄積論의 검토와 概念의 確定	V. 맺음말
III. 後進資本主義에 있어서의 本源的蓄積 — 韓國에 適用可能한 몇 가지 假說	

I. 머 리 말

植民地下 勞働者階級과 社會의 性格을 어떻게 規定할 것인가. 이에 대한 研究는 해방이 후 현재까지의 韓國經濟의 構造的 特徵과 內容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解答을 提供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뛰어난 학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통계자체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單純實證에 집착하는 연구분위기로 인해 해방이후의 韓國經濟의 性格과 歷史性에 대한 규명은 거의 공백상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¹⁾ 따라서 현재의 한국사회와 관련시켜 실천적이론의 정립을 위한 한국근현대사의 체계적인 성격규정과 재평가가 요청되고 있으며 이에 植民地下 勞働 및 社會性格의 문제는 그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植民地라는 概念이 과학적 용어임에는 틀림없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주는 歷史的 意義와 段階는 무엇인가.²⁾

資本主義 固有의 運動을 確立시켜 나가는 本源的 蓄積은 世界史的으로 보았을 때, 前期에는 直接生産者의 生産手段으로부터의 離脫, 後期에는 勞働·資本의 結合 및 프롤레타리아트의

* 延世大學校 商經大學 講師

1) 武田은 그의 최근의 論文에서 日本의 經濟學界 역시 그 동안의 이론성과가 충분히 계승되지 못하고 오히려 최근 소박한 實證主義에 함몰된 것은 아닌가라는 회의를 제기하였다. 武田晴人, "日本における帝國主義經濟構造の成立をめぐって", 「社會經濟研究」,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 1987. 12.

2) 植民地研究에 대한 그간의 方法論不在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뛰어난 실증성과 역시 地主制의 형성, 발전과 民族獨立, 社會運動의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다시금 연구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영역설정과 식민지하 한국사회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창출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後進資本主義 특히 植民地에서 독립한 發展途上國의 發展過程의 因果關係와 發展戰略을 추출해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段階區分과 性格規定이 必要하다. 資本主義의 社會構成體가 단순히 量的 累積이 아닌 質的 飛躍段階를 통과함인 必然的이라면, 그 형식으로서의 本源的 蓄積에 대한 研究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후진자본주의 특히 植民地를 경험한 지역의 本源的 蓄積에 대한 理論的 검토와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한국자본주의의 경우 역시 發展過程과 性格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作業이 요청됨은 명확한 사실이다.”

따라서 日帝下 勞働者階級の 性格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이때 노동자의 性格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低賃金, 農村勞動力移動, 노동착취, 노동대항이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勞働者階級の 形成, 國家의 역할, 勞動力再生産過程과 勞働運動의 內容 등을 發展이라는 歷史性과 全體的인 經濟構造의 측면에서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맑스는 “産業的으로 더욱 더 발전하고 있는 국가는 발달정도가 낮은 國家에 대해 그 국가 자신의 未來像을 보여준다.”⁴⁾ 라고 말함으로써, 單線的 發展論에 대한 立場을 일단 분명히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맑스의 입장은 적어도 一國의 賃勞動創出을 包含하는 本源的 蓄積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해석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資本主義蓄積의 歷史的 傾向’이라는 章에서의 “奴隸와 農奴의 賃勞動者로의 直接的(形態)轉化 그러므로 단순한 형태변화가 아닌 한 직접적 생산자의 수탈 (expropriation) 즉 그 所有者의 勞

3) 현재 한국의 本源的 蓄積에 관한 종합적연구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용어를 사용하는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으로 ①本源的 蓄積에 대한 정의부재 및 단편적 규정, ②일반성 혹은 後進資本主義, 植民地와 관련된 特殊性에 대한 이해부족, ③質的 飛躍規定과 경과단계에 대한 이해부족, ④總體的, 有機的 産業構造구성의 미비등을 들 수 있다. 예컨대 ①의 경우는 朴玄採, “韓國資本主義의 전개와 제단계와 그 구조적 特徵”, 「韓國經濟構造論」, pp.45-46 ; 정성진, “帝國主義와 주변자본주의”, 「오늘의 책」 5, 1985, pp. 37-38 ; 堀和生, “日本帝國主義の植民地支配史試論”, 「日本史研究」 281, 1986, pp. 67-101에서, ②의 경우는 安秉直, 張矢遠의 植民地半封建論에 대한 연구:이대근, “韓國資本主義의 성격에 관하여”, 「창작과비평」 57, p.355 ; 정성진, “일제하 조선에 있어서 노동자존재형태와 저임금”, 「한국자본주의와 임금노동」, 禾多, 1984 ; 정성진, 앞의 글, pp.37-38 ; 김준보, 「韓國資本主義史研究」, 一潮閣, 1979, p.48에서, ③의 경우는 朴玄採, “해방전후 민족경제의 성격”, 「한국사회연구 I」, 한길사, 1983, p.392 ; 宮嶋博史, “朝鮮史研究と所有論”, 「人文學報」 167, 1984, p. 43 ; 이진경,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 아침, 1987, p.215, pp.251-252 ; 김석민, “일제하 조선농업의 성격에 관한 일연구”, 「한국자본주의와 농업문제」, 아침, 1987, pp.40-44에서 드러난다. ④의 경우는 堀和生の 앞의 논문과 여타의 모든 연구에서 발전된다.

4) Karl Marx, Capital Vol.1, International Publishers, New York (8th), 1977, pp.8-9.

動에 기초한 私的 所有의 해소를 의미하는데 지나지 않는다.”⁵⁾ 와 ‘本源的 蓄積의 秘密’이란 章에서의 “農業生産者, 農民으로부터의 토지수탈은 모든 과정의 기초를 이룬다. 이 수탈의 역사는 국가별로 다른 형태를 띠고 있으며 상이한 순서와 시기에 따른 재단계를 통과한다.”⁶⁾ 는 등의 서술을 볼 때, 본원적 축적과정에 있어 각국의 차이를 맑스가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상호모순되어 보이는 차이는 맑스가 역사적 단계 즉 동태적 과정의 차이를 분명히 함으로써 後進資本主義 發展過程의 特殊性을 검출하려고 하는 작업이었을 뿐이며, 하나의 唯一한 支配的인 형태의 社會構成體는 인류역사상 5단계를 공통적으로 통과함을 그의 전저작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이는 또한 아시아적 생산양식 논쟁과 역사적 경험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資本主義的 社會經濟構成體로의 이행이 단순한 우크라드 변화측면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質的 變化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本源的 蓄積이란 生産者를 生産手段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라는 단편적 규정에서 벗어나⁸⁾ 총체적이고 동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즉 勞動者가 土地를 基本的인 生産手段, 生活手段으로 하는 自然一般으로부터 격리되고 노예, 농노 혹은 다른 예속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二重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계급으로서 勞動市場에 나타나면서 市場의 創出, 國家 및 資本 暴力의 개입,⁹⁾ 貨幣資本의 형성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勞動이 資本과 결합됨으로써 資本의 內的 運動이 시작되는 과정이 총괄적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5) *Ibid.*, p. 761. 방점부분이 佛語版에서는 제외되어 있는데, 이를 맑스가 單線的 發展論으로 회귀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6) *Ibid.*, p. 716.

7) 우크라드(Uklad)란 社會構成體의 質을 규정하는 주요한 生産關係를 제외한 副次的 生産關係, 즉 ①맑스는 생산관계의 잔존물, ②미래사회에 존재할 생산관계의 맹아관계, ③어떠한 사회에도 존재하는 小經營을 말한다. 林直道, 「史的唯物論と經濟學」下, 大月書店, 1978, p. 48. 일제하의 모든 연구는 이점에서 인식상의 혼돈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8) Karl Marx, op. cit., pp. 714-715.

9) 國家는 國債制度를 통해 不妊의 貨幣에 생식력을 부여하여 資本으로 전회시킴으로서 본원적 蓄積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렛대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殖民制度, 近代의 租稅制度, 保護貿易制度 및 流血立法등을 통하여 과도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暴力을 행사한다. 이때 暴力은 새로운 사회를 잉태하고 있는 모든 낡은 사회의 助産婦이며 그것 자체가 하나의 경제적 힘이다. Karl Marx, op. cit., pp. 750-760.

시간상으로도 맑스가 가장 고전적인 형태로 정리하였던 英國의 경우에 있어서¹⁰⁾ , 本源的 蓄積過程은 15세기경에 시작하여 3-4세기를 경과하지 않을 수 없었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자들은 오히려 반식민지, 식민지를 거치면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되는 여러 국가들의 사회구성체를 단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이론의 혼돈을 가져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혼돈으로 말미암아 한 사회가 資本主義的 社會構成體로의 質的 移行을 행할 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본원적 축적에 대한 論議가 사상되어 버렸다. 또한, 더 나아가서 개별성과 통일되어 관찰되는 보편성을 의미하는 특수성이 限定說 (theory of localism)이나 實證主義的 個別性으로 호도됨으로써 비생산적인 사회성격논쟁만이 되풀이되고 말았다.

社會經濟構成體 (social-economic formation)는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이나 사회현상들의 기계적인 조립물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사회체계인바, 그것은 특정한 사회유형 즉 어떤 생산양식에 근거한 그 자신의 독특한 법칙에 따라 작동하고 발전하는 통합된 사회체계¹²⁾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사회구성체를 여러 生産樣式의 구체적인 重層으로 보고 生産樣式사이의 구체적 지배 및 중층적 결정의 관계로 특정지워진 接合으로 정의하는 것은¹³⁾ 편리한 설명이기는 하지만, 이론의 실천적 위상을 생각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한 사회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수성속에서 보편성이 관찰되는 과정을 분명히 이해하여야 하며, 두번째로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통합체로서의 사회가 구성되어져야만

10) 이러한 이유로 이영훈 (1987年度 經濟史學會, 1987.4.16), 윤소영, “한국사회성격규명을 위한 올바른 이론적 입장의 확정을 위하여”, 「한신경제학토론」 8611호, 한신대, 1986, pp.46-50 등 일련의 연구자들은 실증에 입각하여 한국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결코 맑스의 단계론이 한국에 적용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정론적 특수성은, 논리적인 접근방법이 대상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며 실재적인 발전과정의 연구를 기초로 하면서 그것의 본질을 파헤쳐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충분히 성숙되고 고전적인 형태에 있는 발전의 지점에서 현상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변증법, 그리고 운동의 형태변환의 보편적 법칙은 그것에 대한 모든 개별적인 구체적 실례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다. 따라서 보편성에 정확히 입각해 있을 때에만 개별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가능하다는 통일과정을 잊고 있는 것이다.

11) “15세기 영국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獨立自營農民이……18세기말에 마지막으로 공동지에서 이탈되고……이것이 마지막으로 토지청소를 거쳐 19세기에 들어와……비로소 자본과 결합될 수 있었다.” Karl Marx, op.cit., pp.717-733.

12) F. V. Konstantinov, 「The Fundamentals of Marxist - Leninist Philosophy」, p.241, 김석민, 앞의 글, p.14에서 재인용.

13) Harold Wolpe, “The Articulation of Modes of Production”, 朴在默 譯, 「제3 세계사회발전론」, 창작과 비평, 1985, p.344.

하고, 세번째로는 동태적인 의미로서의 과정을 중요시하여 그 과정의 결과로서의 구성물에 焦點이 맞추어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¹⁴⁾ 본고에서는 이런 의미에서 本源的 蓄積論에 입각하여 植民地下 韓國에서의 勞動者의 形成과 再生産을 규명함으로써 植民地下 勞動者階級の 성격과 사회성격에 대한 한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본론에서도 언급하겠지만 한국의 본원적 축적과정은 조선말기와 해방이후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 논문의 목적과 지면상 일제하에 한정시키고자 한다.

II. 本源的 蓄積論의 검토와 概念의 確定

本源的 蓄積에 관하여 밝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① 소위 本源的 蓄積이라고 하는 것은 生産者를 生産手段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역사적 과정이외의 그 어느 것도 아니다.¹⁵⁾
- ② 아메리카에 있어서의 金銀의 발견, 원주민의 제거, 노예화 및 광산예의 매몰, 동인도의 정복과 약탈의 개시, 아프리카의 상업적 흑인수렵장으로의 전화……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자본제적 생산시대의 서광이 나타난다. 이들 목가적 과정은 본원적 축적의 주요한 계기 (chief momenta)이다.¹⁶⁾
- ③ 資本主義生産의 역사적 발생기에 있어서는 사정이 다르다. 資本家들은 초기에 임금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의 暴力을 원하고 또한 사용한다. 즉 剩餘價値를 만들 수 있는 한도까지 임금을 내리고, 노동일을 늘리며, 노동자 자신이 정상적인 종속관계를 유지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이용한다. 이것이 소위 본원적 축적의 본질적 요소 (essential element)이다.¹⁷⁾
- ④資本의 축적은 剩餘價値를 전제한다. 剩餘價値는 資本制的 生産을 전제한다. 資本制的 生産은 상당한 양의 자본과 財貨生産者에 의해 관리되는 勞動力의 先行的 存在를 전제로

14) Uno의 原理論, 段階論, 現象分析論 분류에 의한 方法論은 결국 과정의 성과물로서의 원리론을 歷史性이 없는 무한순환론에 귀결시켰으며 스스로 原理論의 성과인 범주를 이용한 자국의 특수한 발전을 해명하는 논리를 포기하고 있다. Kozo Uno,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 Theory of a Rurely Capitalist Society」, Harvester Press, 1980, Introduction.

15) Karl Marx, op. cit., ch.24, p.714.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이것이 本源的 蓄積의 가장 핵심적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기존 논의들이 맑스의 전체를 사상하고 이 말 자체에 얽매임으로써 그 동안 편협된 방법론에 빠져 있었다.

16) *Ibid.*, ch.31, p.751.

17) *Ibid.*, ch.28, p.737.

한다 (Pre-supposes the pre-existence). 이런 과정의 움직임이 단지 자본제적 축적에
 선행하는 본원적 축적을 가정함으로써 순환적으로 되는 것이다.¹⁸⁾

여기에서 本源的 蓄積이란 ①直接生産者의 生産手段과의 분리 ②生産資本으로 전화하기
 위한 資本의 축적, 발생과정으로써의 貨幣資本의 형성, ③助産婦로서의 國家權力의 利用¹⁹⁾
 ④勞動을 社會的 勞動力으로 변화시키며 동시에 社會的 生産力으로 資本을 현상시키는 과정
 인 資本主義 形成史로서의 勞動·資本의 結合을 총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²⁰⁾

맑스는 本源的 蓄積에 관한 논의를 주로 영국을 대상으로 언급하면서 서유럽의 여러 나라
 들도 이와 동일한 변화과정을 경과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後進
 國型本源的 蓄積이 完全히 이질적인 성격을 가진 과정이었다는 限定論은²¹⁾ 인정할 수 없
 다. 그러나 本源的 蓄積을 위의 네가지 총괄과정으로 이해할 때, 後進資本主義國家 특히
 식민지를 경과한 국가들의 本源的 蓄積過程은 서유럽과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은 물론
 이다.²²⁾ 바로 이 차이점이 오늘날의 세계자본주의체제에서 동질적인 규정을 받고 있으면서
 도 지배, 피지배 집단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인 것이다.

역사적 경험에서 本源的 蓄積過程을 보면, 農業生産者로부터의 토지수탈과 프롤레타리아트

18) *Ibid.*, ch.26, p.713.

19) 절대왕정이 미온적이기는 하였지만 무자비한 放牧의 확대를 금지하였다는 역사적 경험과 “暴
 力과 기만은……필연적인 경제과정을 촉진시키고 그 강화를 도울 뿐이다.”라는 封建社會論爭
 의 이론성과에서 볼 때, 이를 本源的 蓄積의 가장 핵심적요소로 평가할 수는 없다. 스카스킨,
 “봉건적소유와 經濟外的強制에 대한 막스·웨닌주의의 고전”, 「封建社會의 基本法則」, 김석
 민, 앞의 글, p.25 재인용. 한편 大塚이나 領木 등의 「자본론」, 24 장 7절에 근거한 本源
 的 蓄積의 內生分解論, 非暴力論은 극복되어야 할 견해임에 틀림없지만, 토대에 대한 인식의
 강조라는 점에서 평가받을만 하다. 大塚久雄, 「大塚史學著作集」, 岩波書店, 1978 : 同, 「西
 洋經濟史講座」, 岩波書店, 1973, 1권서론, 2권총론, 4권: 領木鴻一郎, 「マルクス經濟學の
 研究」上, 東京大出版會, 1968,

20) 가장 최근에 統計利用의 한계를 정확히 지적하면서 本源的 蓄積에 대한 시론을 제기한 堀和生도
 小經營農民의 生産手段分離—賃勞動者形成이라는 단순도식으로 인해 인구축면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따라서 총독부의 역할 및 여타요인에 의한 이해부족을 戰爭에 의한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堀和生, 앞의 논문, p.68, p.99.

21) 예컨대, 海野福壽 등은 註22를 논거로 후진국형 本源的 蓄積을 노예 및 농노의 임노동자로
 의 직접전화, 따라서 단순한 형태변화로 파악하고 있다. 海野福壽, 日本型本源的 蓄積論, 「講
 座日本史」第5卷, 史學研究會, 日本史研究會, 東京大學出版會, 1970, p.239.

22) 註2, 註3 參照. 맑스 역시 「자술리치에의 편지」 및 「추신」에서 “사적 소유의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한 형태로의 전화에 대한 설명은 서유럽제국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서
 유럽 以外の 특히 러시아의 경우 舊社會의 共同體 자체가 러시아社會를 재생하는 거점이 되
 었음”을 지적하였다. 「Karl Marx 全集」, 19, p.238, 大内秀明·櫻井毅·山口重光, 「資本論
 研究入門」, 東京大學出版會, 1980, pp.157-158 재인용.

로의 전화, 賃勞動·資本의 모순적인 결합이²³⁾ 동시병행적으로 진행된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앞에서 제기한 과정을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本源的 蓄積段階를 直接生産者의 生産手段으로부터의 分離와 結合이라는 보편적 현상으로부터 前期와 後期の 段階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本源的 蓄積에 대한 논의를 유도해 보자.

가장 순수한 형태로 인정된 영국의 경우에 第一次綜劃運動을 경과하면서 대량의 농민들이 生産手段으로부터 강제추출당하지만 17세기말 영국 총인구 550 만명 중 23.6 %인 130 만명이 流民으로 표류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로의 전화라는 후기적 단계와 명백히 구분되는 전기적 단계를 경과하였다.

本源的 蓄積을 完成시켰던 후기의 과정도 모직물공업이 발전하고 곡물생산이 증대하였던 17세기말의 영국에서 제일 먼저 진행되었다. 離農民들은 매뉴팩처 및 農業資本家의 賃勞動으로 흡수되었고 뒤이어 일어난 産業革命으로 近代의인 賃勞動者로 정착되어 갔다.²⁴⁾ 이는 시기적인 차이는 보이지만 19세기 중엽의 일본 및 러시아에서도 순차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한국의 경우도 前期的 過程으로서의 産米増殖計劃을 통과하여 1930年代 이후 賃勞動創出의 조건이 구조적으로 형성되었다. 단지 영국형과는 달리 후진자본주의의 경우는 대부분 後發産業革命의 특질상 처음부터 有機的 構成이 높은 技術이 도입되고 國家主導에 의해 일부 공업만이 육성됨으로써 農民層의 광범위한 小作農維持와 賃勞動創出이라는 과정이 계속 병존하고 있었음에 차이가 있었다.

Ⅲ. 後進資本主義에 있어서의 本源的 蓄積 - 韓國에 適用 가능한 몇 가지 假說

아민은 本源的 蓄積의 永久性을 주장하면서 “本源的 蓄積은 資本의 前史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존재하며 현재에도 존재 한다.”²⁵⁾ 고 전제하고, 低開發이나 第三世界의 概念을 廢棄하고 周邊部에서의 資本主義의 형성이라는 문제에 焦點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아민은 農業의 商業化 및 農民으로부터의 토지수탈과 프롤레타리아트 創

23) 見田石介, 「見田石介著作集」, 第一卷, 大月書店, 1980, pp. 26-32.

24) 물론 후기의 본원적 蓄積過程에도 土地로부터의 農民離脫은 존재한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2차종획운동, 한국의 경우 식민지와 해방 이후를 통한 農民層 下向分解를 들 수 있다. 실질적으로 英國의 경우 18세기 종획운동에서 배출된 농촌인구가 16세기보다 많았다. 그러나 이때의 주요한 계기는 賃勞動者의 創出過程이다.

25) Samir Amin, Accumulation on a World Scale, Monthly Review Press, N. Y., 1974, p. 22.

出過程을 植民地權力이 지배를 관철해 나가는 本源的 蓄積過程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⁶⁾ 이러한 아민의 주장은 그의 단편적인 맑스비판에도 불구하고, 맑스가 本源的 蓄積論의 전개에서 피수탈지역에서의 賃勞動剝出過程을 주의깊게 분석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함으로써 식민지의 本源的 蓄積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메이야쓰는²⁷⁾ 아민이 低開發諸國에서의 勞動力의 過剩供給에 의한 低賃金에 기초하여 國際不等價交換을 설명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一回的인 本源的 蓄積論은 맑스의 오류라고 同時批判하였다.²⁸⁾ 그는 帝國主義가 본원적 축적의 실현을 위해 生活資料의 生産部門인 家族制部門을 온존시킴으로써 農閑期の 家族共同體로부터 勞動力을 選流的 移動의 형태로 흡수하여 低賃金の 勞動을 착취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本源的 蓄積(primitive accumulation)이 資本主義의 本來的 蓄積(original accumulation)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本來的 蓄積을 보완하고 더우기 非賃金勞動者에 대한 資本의 초과착취를 可能하게 한다는 프랑크의 주장과 유사하다.²⁹⁾ 이들의 研究는 資本이 勞動力再生産費의 일부와 生命再生産費의 전부를 家族制共同體에 부담시키는 형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植民地 韓國의 본원적 축적과 賃勞動者性格에 대한 중요한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後進資本主義 本源的 蓄積의 경우 이식된 자본의 성격상 전면적인 프롤레타리아트化라는 과정이 정제되면서 農村過剩人口가 유지되고, 따라서 小作關係가 온존되는 가운데 高率의 小作料가 經濟的 強制에 의해 실현되면서 兼業農民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왈러스타인은 본원적 축적을 논하면서 그 동안의 오류가 移行概念의 혼동에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즉, 移行이라고 하는 것은 ①封建制의 資本主義로의 唯一한 轉化(unique transformation), ② 그것에 따른 資本主義 世界體制로의 편입(incorporation), ③世界體制內에서의 노동의 프롤레타리아트化와 토지의 商品化 확대인데, ①의 轉化過程은 1회적이지만 ②, ③의 과정은 결코 완결적, 일시적인 것이 아님이 강조된 것이다.³⁰⁾ 이런 점에서

26) *Ibid.*, pp.20-33.

27) Claude Meillassoux, Maidens Meal and Money-Capitalism and the Domestic Commun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N.Y., 1975, pp.91-144.

28) 이는 Barbara Bradby, I.Wallerstein, A.G.Frank 등에 의해 계속 제기된다. 望月清司, “第三世界研究と本源的蓄積論”, 「經濟評論」, 1981, 12, pp. 86-101 論議를 參照.

29) 프랑크는 실질적인 예로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어서 大家族制農村에서 출퇴근하는 勞動者의 低賃金構造, 대부분의 勞動者 家族內의 妻나 母의 無給家內勞動 등을 들고 있다. A.G. Frank, World Accumulation 1492-1789, Macmillan, London, 1978, p. 241ff.

30) I.Wallerstein,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N.Y., 1979, p. 139.

불 때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그러했듯이, 지속적인 창출과정인 賃勞動者의 發生을 移行의 時點確定要因 혹은 決定要因으로 취급하는 것은 非生産的인 論爭만을 가져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메이아쓰·아민에 의한 共同體部門導入과 함께 월러스타인의 動態的인 주장은 한국에 있어서 노동과정의 일면성에 입각한 기존논의의 문제점³¹⁾을 잘 지적해 주고는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러한 사회성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장 결정적인 質의 移行이란 측면을 평가못하는 非規定的 不可知論에 빠지기 쉬운 한계를 가진다.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를 정리함으로써 다음 장에서의 논의를 분명히 하도록 하자. 우선 후진국에 있어서 本源的 蓄積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³²⁾ 물론 자본주의의 本來的 蓄積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틀림없지만, 적어도 후진지역 역시 植民地를 경험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통합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본주의로의 질적 비약, 즉 漸次性的 증단계기가 필연적인 것임은 물론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점차적인 量的 變化의 연속된 선이라는 형태로 역사를 규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時代區分の 不可知論에 빠지거나 정체·순환사관에 함몰되고 만다. 그 결과 改良論으로 수립되는 단순진화론 내지 예정론이나 객관적 역사를 주관적으로 무시해 버리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식민지가 植民本國의 資本主義發展 즉 貨幣資本 형성을 위한 대전제라고 한다면, 이는 비록 시간적인 차이를 요구할지라도 植民地에 필연적으로 資本의 一般性을 관찰시킬 것이고, 따라서 本源的 蓄積이 어떤 形態로나마 관찰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후진지역 혹은 植民地에 獨占資本이 침투한다고 해서 바로 本源的 蓄積이 시작되거나 資本制化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韓國의 경우처럼 조선조의 내재적인 資金 本源的 蓄積의 형태였던 資本主義萌芽가³³⁾ 通貨改革 등의 帝國主義政策에 의해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의 필연성을 무시하고, 資本의 主

31) 예컨대 安秉直, “1930年代 朝鮮人勞動者階級の 特質,” 1987年 經濟史學會, 1987.4.16 : 張 矢遠, “植民地 半封建社會論”, 「韓國資本主義論」, 까치, 1984, 註31 : 정진성, 앞의 논문 : 堀和生, 앞의 논문 등이 있다.

32) S. Amin, B. Bradby, C. Meillassoux, I. Wallerstein, A. G. Frank 등 世界資本主義에의 종속을 주장하는 이론들의 공통된 견해는 계속설이다. 한편 東京大의 宮嶋博史는 논평을 통해 식민지에서의 本源的 蓄積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회의를 제기했는데 이는 식민지에 대한 동정론과 방법론의 결여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33) 이 논문의 목적상 日帝下에 한정하지만, 나는 18세기말의 資本主義萌芽를 이미 內在的인 資金 本源的 蓄積의 형태인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賃勞動者가 당시 발생하고 있었지만, 이 글에서 분석하였듯이, 土地에 진박된 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分離過程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體性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거나 각국의 개별성, 지역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본범주에 대한 물이해와 객관적 세계에 대한 특수성의 본질적 규정을 잘못 해석한데서 생긴다. 이같은 논의는 스스로 그 논리의 확장에 한계를 가지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단계구분에 있어 中間段階라는 필요불가결한 과정을 상정하면서도 이를 「區分規定」으로 인정하는 것은³⁴⁾ 중간단계라는 靜態的·質的 對等關係를 이미 인정하는 것인데, 이는 일정한 운동공간과 시간에서 상대적 일정성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靜態性일 뿐 문자 그대로의 정체성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모순을 범하게 된다. 왜냐하면 운동의 정지는 처음부터 그 역사의 존립을 부정하게 되며, 따라서 성립가능한 概念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애초부터 상대적으로 不變性을 띠고 있는 특정 형식이 대상의 주요한 측면이자 기초인 그 내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은 質的 變化의 초기단계에서 이미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對立物의 統一이란 분명히 合體된(unified) 것이 아니라 相互前提, 相互制約된 상태를 의미하며 均衡이라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상대적이며 항상 대립과 갈등이 절대적, 보편적이다.³⁵⁾ 만일 최근의 과도기론³⁶⁾을 채택할 경우 인류사는 항상 과도기가 된다. 따라서 전체구조의 형성에 실패하게 되고 생산양식이나 사회구성체 규정이 의미가 없게 된다는 점에서 과도기론은 자기모순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결국, 後進資本主義國 역시 자본주의의 本來的 蓄積과 구별되는 資本主義成立史로서의 本源的 蓄積의 일회적 계기가 관철된다고 보아야 하며, 문제는 이 과정의 위치와 형식, 내용 규정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後進資本主義, 특히 세계자본주의 被規定的인 형성물이었던 한국 식민지 시대의 本源的 蓄積過程을 해명하려면 결코 노동력창출 등의 단편적 형태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식민지 한국은 자본주의제국과의 공통점 및 세계자본주의와의 일반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本源的 蓄積의 주요 계기인 賃金, 資本家の 發生, 賃勞動創出過程 등에서 당연히 다르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資金本源的 蓄積上的 차이점이 선진 자본주의 本源的 蓄積過程과의 차이라고 인정되는 것은³⁷⁾ 식민지연구의 중요한 착안점이 될 수 있으며, 임금노동자의 창출에 주력하였던 고전적 형태와 다른 이러한 점이 바로 總督府라는 上部構造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던 것이다.

34) 예컨대 張矢遠, 앞의 글, p.39: 梶村秀樹, “舊殖民地社會構成體論”, 「殖民地半封建社會論」한울, 1984, p.435.

35) 見田石介, 「見田石介著作集」第一卷, 大月書店, 1980, pp.104-105.

36) 강상환, “현행소작의 실패와 성격”, 「박기혁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1987.

37) 佐々木寛司, “本源的 蓄積の二類型” 「歴史評論」, 1985, pp.76-80.

Ⅳ. 植民地下 勞働者階級の 形成과 再生産

日帝는 18세기 조선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內在的 資本主義萌芽의 실체였던 資金本源的 蓄積을 通貨改革 등의 일련의 經濟政策으로 後退시키고 移植資金에 의한 植民地經濟 再編成을 시도하였다.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1910年代를 통하여 계속된 「朝鮮土地調査事業」은 한국에 있어서 直接生産者였던 農民들을 土地로 부터 강제로 유리시키는 暴力的結果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기존의 研究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이는 좀더 나아가 驛屯土地調査事業, 山林所有權整理事業과 연결 됨으로써, 식민지통치권력을 위한 本源的 蓄積過程으로서의 直接生産者의 생산수단으로부터의 분리라는 면에서, 토지조사사업이 완결되던 1918年 이후 혹은 1920年代 초를 자본주의사회 구성체로 보는 견해로 성립되기에 이르렀다.³⁸⁾

이러한 견해는 앞장에서 제기하였듯이 本源的 蓄積의 概念에서 이미 한계를 가지지만, 生産手段과의 분리라는 측면만을 보더라도 史實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産業構造上 農業이 支配의이며 社會的 生産力이 성숙되지 못했던 당시로서는,³⁹⁾ 이러한 生産手段에 대한 정리사업은 단지 다른 형태로의 결합, 즉 대체를 의미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18년의 토지조사사업이후에도 農民들은 계속 農村에 머물면서 地主·小作 및 일부의 賃勞動으로 재편되었을 뿐 質的 變化는 일어날 수 없었다. 실질적으로 農家戶數比率이 1920年代에 오히려 증대하는 등 1920年代 中半까지 1910年代와 같은 比率을 유지했으며 農村人口의 移動 역시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 表 4-1 > 職業別 農家戶數比

		(%)				
年 度	1918	1920	1922	1924	1926	1928
比 率	83.9	85.2	83.6	82.1	81.0	79.7

* 資料 : 朝鮮總督府, 「朝鮮統計年報」, 各년도

* 表註 : 가족구성원의 직업이 전부 제외된다는 점에서 戶口調査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결여한다.

38) 물론 본문과 논리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金俊輔, 「韓國資本主義史研究」, 一潮閣, 1979, p.48 ; 朴玄探, 해방전후 민족경제의 성격, 「한국사회연구」, 한길사, 1983, p.392 ; 김석민, 앞의 글, pp.40-51 ; 이진경, 앞의 글, p.252 ; 宮嶋博史, 앞의 글, 1984, p.43 등에서 발견된다.

39) 1910년대 말 한국에 본사를 둔 회사를 분야별로 보면 은행·금융업이 40% 이상, 운수업이 20% 이상, 상업이 10% 이상으로 식민지가 갖는 특징인 기형적인 것이었다.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各年.

이러한 사실은 전체적인 논리는 인정할 수 없지만 1920년대 당시의 상황을 잘 묘사한 두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토지를 잃은 농민의 대다수는 工業勞動者나 農業勞動者로 轉身하지 못하고 近代的 産業의 發展制止로 因하여 종래의 封建的, 零細農的, 生産樣式 밑에서 순전한 小作農으로 개편 되었다……”⁴⁰⁾

“……그들은(農民-인용자) 여전히 오늘날에 있어서도 한조각의 土地에 달라 붙어서 土地所有者인 地主와 직접적으로 대립하여 生産關係를 맺고……”⁴¹⁾

이와같은 상태의 農村과 直接生産者인 農民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총독부가 당시 일본자본의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농촌에 막대한 노력과 자금을 투여했던 산미증식계획이었다. 1920년에 시작된 「産米増殖計劃」은 多肥를 중심으로 한 生産要素의 多投入과 土地改良, 水利施設을 위해 大規模 資金을 필요로 함으로써 金融資本과 獨占資本의 급속한 農村浸透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地主를 포함한 全農民은 農家經濟收支惡化를 겪게 되었으며 1920년대 말에 이르러 農村에는 小作農과 賃勞動이 급격히 확대되었다.⁴²⁾ 이는 바로 小作料壓迫의 직접적 요인으로 나타나 農業所得만으로는 勞動力의 再生産조차 위태로웠던 막대한 貧農들을 出稼勞動으로 내몰았다. 이들이 1928년 당시 100만명이 넘었던 半農半勞者들로서⁴³⁾ 대부분 農閑期를 이용한 부근의 工事場에 出稼하는 半프롤레타리아트계층이었다.

農業에서의 수탈을 의도했던 産米増殖計劃은 情報의 獨占, 金融을 中心으로 한 危險負擔의 保險化失敗, 單位生産費의 過大 등에 따라 전계층의 下向移動을 계속발생시킴으로써 相對的 過剩人口 創出의 外在的 要因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산미증식계획의 말기인 1931년에 “土地와 資本의 사용에서 전연 떠난 인구”가 전인구의 21.4%에 달하고 있었으며,⁴⁴⁾ 이것이 바로 直接生産者가 土地로부터 비로소 분리된 本源的 蓄積의 전 기적 형태였던 것이다.

40) 全錫淡, 「朝鮮經濟史」, 博文書, 1949, p.230.

41) 朴文圭, “農村社會分化的 起點으로서의 土地調査事業에 關하여”, 「朝鮮社會經濟史研究」, 京城帝國大學法文學會, pp.525-529.

42) 拙稿, “産米増殖期の地域別, 階層別 農家經濟研究”, 第61回朝鮮近代經濟史研究會, 東京經濟大學, 1988.4.16.

43) 朝鮮鐵道協會, 「朝鮮に於ける勞動者數及び其の分布狀態」, 1929.1, pp.1-3.

44) 李如星, 金世鎬, 「數字朝鮮研究」四輯, 世光社, 1933, p.5.

農業部門의 賃勞動統計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또한 통계마다 集計方法의 차이가 있지만, 1930 年の 「國勢調査報告書」에 의하면 產米増殖計劃의 절정기였던 1930 年에 이미 純粹 農業勞動者가 전농경인구의 9 % 이상에 달하고 있었다.⁴⁵⁾ 產米増殖計劃이 증지된 1932 年에는 전체농가호수 중 54.3 %가 小作農이고, 79.7 %에 해당하는 230 만호 이상이 小作農 및 自作兼小作農이었다. 이들은 상당수가 五反步以下の 農耕地를 경영하는 貧農이었으며 당시 관행상 파괴되고 있었던 村落共同勞動에 대신하여 賃勞動을 병행하고 있었다.⁴⁶⁾ 결국 산미증식계획을 통하여 농촌에는 生産手段과 유리된 賃勞動者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는 1930-1932 年の 農家經濟調査에서 雇傭勞動이 전체노동의 40 %를 차지한 점에서도 명백히 나타난다.⁴⁷⁾

〈表 4-2〉 產米増殖期の 階級變動

階 級 \ 年 度		1919 年	1932 年
地 主	甲	0.6 %	1.1 %
地 主	乙	2.8 %	2.4 %
自 作	農	19.7 %	16.0 %
自作兼小作農		39.4 %	25.4 %
小 作	農	37.6 %	54.3 %

* 資料 : 朝鮮總督府 農林局, 「朝鮮ニ於ケル小作ニ關スル參考事項摘要」, 1934, p.48.

따라서 당시 농촌에 지배적으로 계급화하고 있는 貧農들은, 첫째, 생산수단과 유리된 점, 둘째, 鑛工業部分의 需要에 의해 즉각 흡수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져 있는 점에서 성격규정상 분명 반프롤레타리아트들이며 단순小農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⁴⁸⁾

韓國의 資本制部門이 여전히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1920 年代 전반부를 통과하면

45) 朝鮮總督府, 「昭和5年朝鮮國勢調査報告」, 全鮮編, 1934.

46) 鈴木榮太郎, 「朝鮮農村社會踏査記」, 1943, p.24.

47) 朝鮮農會, 「農家經濟調査」, 京畿道, 分, 1932 : 同, 慶尙南道, 分, 1934.

48) 물론 러시아와 한국의 경우는 다르지만, 적어도 이러한 貧農階級들을 쁘띠부르조아로 규정 한 카우츠키나 나로드니키에 대한 비판은 이미 오래 전의 선구자적인 연구에서 잘 나타나 있다. V. Illich,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Russia, Collected Works, Vol. 3, p.174. 이런 점에서 통계상의 공업노동자수에 입각한 半封建의 논리는 도구론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서 재생산위기에 처해 있었던 日本獨占資本은 이제 韓國을 以前의 原料·地金 획득지로서의 성격과 동시에 中國과 연결된 販賣市場으로서의 성격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격변화는 그 자체의 내재적인 상충현상으로 인해 두 성격이 공존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韓國의 資本制化進行은 필요불가결한 것이었다. 또한 이 과정은 현실적 필요에 앞서 資本運動의 관철이라는 필연성을 갖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입각한 일본독점 자본의 한국진출이 뚜렷하게 된 1930년대 중반에 가면 <表 4-3>에서 보듯이 工場生産額이 家內工業生産額을 7:3 정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1928년의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20년대에는 工場勞動者가 전체 노동자의 3.6%에 불과하고 오히려 人夫, 婦人勞動, 兒童勞動, 牛馬車夫, 지게꾼 등이 다수인 상태로⁴⁹⁾ 勞動, 資本의 未結合상태를 보여주지만, 30년대 중반에 들어와 工場制工業이 家內工業生産額을 確實히 앞지른 것은 勞動力의 直接的, 供給的 抵抗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協業이라는 資本主義的 生産樣式의 기본형태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賃勞動者需要創出의 필요조건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協業이라는 工場制工業形態가 資本主義生産樣式 이전에도 행해졌지만 自由로운 賃勞動者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以前의 家內小經營의 형태와는 다르며, 그 자체가 資本主義的 生産過程에 특유한 그리고 이 生産過程을 독자적인 歷史的 形態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었다.⁵⁰⁾

일본독점자본의 한국내 산업분할로 특징지어지는 1930년대의 산업구조변화는 필연적으로 移植되는 자본의 성격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즉, 1930년대 이후 일본독점자본은 한국을 原料수탈, 판매시장으로 인식하던 입장에서 더욱 나아가 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에 資本市場으로서의 성격을 급속히 확대시켜, 이전의 공업완제품 수출일변도에서 原料와 原料製品, 나아가 金屬, 機械類의 한국에 대한 수출비중 증대를 가져왔다.⁵¹⁾ 이런 가운데 근대적 價値革命體系인 工業에서의 構造的 變動이 진행되

49) 1928년 7월의 철도협회조사에 의하면, 한국인 전체노동자 113.6만명 중에서 공장노동자가 3.27만명, 광산노동자가 2.27만명, 토목노동자가 3.27만명이었고 보통인부 28.66만명, 婦女兒童이 31.92만명, 우마차부 8.31만, 지게꾼 8.47만명 등이었다. 朝鮮鐵道協會, 「朝鮮に於ける勞動者數及び其の分布狀態」, 1929.1, p.1.

50) 따라서 協業은 資本主義的 生産樣式의 기본형태가 되며, 생산자재의 변혁에 의해 생겨난 초기의 工場制手工業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자본에 의해 이전보다 많은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는 차이점 밖에 없음에도 資本主義的 生産樣式의 하나의 완전한 독자적인 창조물인 것이다. K.Marx, 「資本論」, 보급판, 大月書店, pp.404-405, 408, 423, 438-439, 471.

51) 鈴木武雄, 「朝鮮の經濟」, 日本評論社, 1942, p.286. 물론 鈴木의 전체적 견해는 인정될 수 없다. 전석담은 그 비중이 지배적이 아니라는 점과 생활필수품 수입이 늘었다는 점에서 이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1870년 이후 原料수탈의 성격에서 1920년대 말의 생산물 시장 비중의 확대, 1930년대 이후 특히 만주사변 이후 日滿經濟블럭의 성립과 金本位停止에 따른 金價格의 앙등, 저렴한 노동력의 확보, 저렴한 수력전기자원에 힘입은 資本投資市場으로서의 한국의 역할증대는 분명한 것이었다. 전석담, 앞의 책, pp.275-285.

< 表 4 - 3 >

生産形態別 工産額

(單位 : 千圓, %)

區分 年度	官營工場生産額	民間工場生産額	家内工場生産額
1923	28,728 (12)	92,136 (39)	112,765 (48)
1925	36,941 (14)	108,750 (40)	123,673 (46)
1926	48,534 (16)	114,703 (38)	136,731 (46)
1927	44,641 (15)	130,061 (43)	128,244 (42)
1928	53,680 (17)	144,690 (45)	120,344 (38)
1935	48,991 (8)	358,349 (60)	200,136 (33)
1937	60,840 (6)	638,254 (67)	260,212 (27)
1939	7,936 (5)	1,091,780 (73)	328,560 (22)

* 資料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1923-1928 ; 鈴木正文, 「朝鮮經濟の現段階」, 帝國地方行政學會 朝鮮本部, 1938, p. 235 ; 川合彰武, 「朝鮮工業の現段階」, 東洋經濟新報社, 1943, p. 235, 日本大藏省管理局,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 朝鮮論, 6分冊 14章, p. 30.

* 註 : 여기서는 5人以下 工場도 包含됨.

< 表 4 - 4 >

工場規模別 原動機 保有工場數의 比率

(單位 : %)

規模 年度	1-4명	5-9명	10-29명	30-49명	50-99명	100명이상	計
1921	16.2	24.6	39.3	65.2	75.0	72.7	28.2
1928	41.1	22.7	62.6	74.4	72.7	91.7	42.2
1929	30.6	30.6	63.9	86.0	84.6	90.5	49.6
1930	35.6	38.9	66.3	86.7	88.0	95.0	52.8
1931	38.3	40.3	69.4	87.5	87.5	100	54.9

* 資料 : 京城府, 「京城府 産業要覽」, 1932, pp. 60-61.

었으며, 이것의 形式的 表現이 < 表 4 - 4 >에서 처럼 原動機를 보유한 工場比率의 顕著한 증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工業부문의 변동은 「産米増殖計劃」에서 發生된 潛

在的 勞動力이 資本과 結合될 형식적 可能性을 유발시켰다.⁵²⁾ 문제의 핵심은 이때 한국에 들어온 자본의 성격으로, 金融恐慌을 정점으로 完成된 일본독점자본이 總資本再生産의 자기순환과정을 완성시킴에 따라⁵³⁾ 資本의 再生産過程을 위한 필연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다暴力的인 利潤의 확장을 위해 海外市場으로서 韓國을 요구한 점에 있었다. 따라서 한국에 들어온 독점자본의 성격은 초기부터 有機的 構成度가 높은 限界를 갖고 있었으며, 資本에 의한 勞·資結合은 相對的 過剩人口의 內的 動因의 창출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자본의 성격상 勞動吸收의 정도가 낮은 상태에서도 1930年代 이후 자본시장으로서의 성격변화는 한국의 産業構造와 勞資結合등에서 변화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產米増殖計劃에서 과생된 過剩人口壓力은 중독부로 하여금 勞資結合에 좀더 적극적인 工業政策을 추진하게 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1931년부터 1942년에 이르는 동안 工場數는 322%, 工産額은 749%, 종업원수는 515%의 증대를 보여주었고, 공업생산액비중도 1938년에는 전산업의 38%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1930年代의 한국공업의 성장율은 원래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日本을 상회하는 13.5%를 달성하였던 것이다.

〈表 4-5〉 工業發達の 性格과 勞資結合의 進行

年度 區分	1910	1917	1925	1930	1931	1937	1939	1943
工場數	151	1,358	4,238	4,261	4,613	6,298	6,952	14,856
職工數 (천명)	8	42	80	102	106	207	270	550
工産額 (천원)	5,227	84,731	269,364	263,275	250,934	959,308	1,498,277	2,050,000

* 資料: 朝鮮總督府, 「會社及工場に於ける勞動者の調査」, 1923; 「工場及鑛山に於ける勞動狀況調査」, 1933; 「朝鮮に於ける工場數及職工數調査概要」, 1942; 「朝鮮勞動技術統計調査結果報告」, 京城日報社, 「朝鮮年鑑」, 各年호; 朝鮮殖産銀行, 「殖銀調査月報」各호.

* 表註1: 國家機密産業이었던 電氣, 가스등을 제외한 5人以上 民營工場 基準임. 따라서 절대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있음.

* 表註2: 통계가 다른 경우 연속성과 信憑性이 높은 순으로 채택 함.

52) 이것이 제 2의 생산력발전을 유도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되는가의 여부는 ①資本의 性格, ②產米増殖計劃에서 나타나듯이 生産力發展을 抑壓하는 生産關係의 逆作用이라는 實踐的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따른다. 拙稿, 「產米増殖期의 生産力 變動과 農家經濟研究」, 연세대석사학

바로 이러한 변화가 1930年代에 진행되면서 비로소 노동자들의 階級的 自覺이 뚜렷해지게 되어 勞動運動의 質的 變化를 맞게 되었으며,⁵⁴⁾ 민족해방운동에서 노동운동이 차지하는 위치 역시 확고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內的, 外的으로 相對的 過剩人口의 조건을 갖추게 된 식민지 한국은 일찍부터 정립된 低賃金을 構造化하면서 1930年代에 國家의 暴力的 諸介入을 통하여 資本運動의 자기순환과정을 정착시키고 있었다. 1930年代의 各種 法律과 인플레이션 조장, 1937년부터 강화된 일련의 원료, 生産量, 販賣量의 규제, 1938년의 「國家總動員法」, 1940년의 「勞動動員計劃」, 각종 金融操作 및 통합, 그리고 「企業整備令」과 韓國人勞動者 強制動員으로 이어지는 總督府의 勞動力需給의 직접개입은 비록 戰時體制에 의한 조치라고 하지만 이는 機緣에 기초한 해석일 뿐이며 필연성으로 볼 때 本源的 蓄積에 있어서의 國家暴力的 조선부적 역할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⁵⁵⁾ 이러한 조정작업의 일차적인 정리를 나타내는 法的形式이 1938년의 「朝鮮鑛夫勞務扶助規則」등의⁵⁶⁾ 勞動保護法이었고, 구체적인 실현형태가 1939년 통계에서 분명히 보이는 獨占現象이었다. 즉 1939년이 되면 紡織, 金屬, 化學, 窯業工業 등에서 전체 공장수의 2-7%에 불과한 중업원 200인 이상의 대공장이 각 업종 생산액의 72-88%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⁵⁷⁾

이런 가운데 1930년대 중반부터 資本·勞動結合이 뚜렷이 진행되었다. 비록 植民地下 대부분의 工業統計는 電氣, 가스 등의 秘密部門을 제외한 5人以上 民間工場만의 過少評價된 것이지만,⁵⁸⁾ 殖産銀行의 1938년 조사에 의해 보면 이미 정형화된 統計上으로도 工場, 鑛山 勞動者가 40만명을 넘어서고 있었다.⁵⁹⁾ 여기에 土建勞動者까지 포함시키면 이 세부문에서

← 위 논문, 1986.8 참조.

53) 恐慌에서 대자본은 독점을 완성시키고 약소자본의 병합을 강행함으로써 자본혼돈의 청소를 스스로 해나가는 동시에 再生産表式에서 보여주는 자기완결적 생산을 진행시켜 간다. 1920년대 말 三井, 三菱, 住友, 安田 등의 4大獨占資本이 일본전체의 산업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7%나 되었으며 이들중 三井, 三菱系의 기업이 그대로 한국에 들어왔다. 大阪毎日, 東京日新聞社エコノミスト編, 「日本金融資本論」, 日本評論社, 1929.

54) 金潤煥, 「韓國勞動運動史」I, 靑史, 1981, p. 343.

55) 기존의 모든 연구들이 非經濟的 規定으로서의 戰爭을 강조함으로써 발전과정의 해석에 단절성을 초래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표적으로 堀和生, 앞의 논문, pp. 98-99.

56) 日帝는 이 규칙으로 14세미만 및 女子의 坑內就業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는 노동보호가 아니라 相對的 過剩人口의 安定的 維持와 國家의 暴力的 整理에 이은 자본운동의 결과였으며, 따라서 本源的 蓄積이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는 곧 해제될 수 밖에 없었다. (1941년 4월 해제)

57) 川合彰武, 「朝鮮工業の現段階」, 東洋經濟新報社, 1943, pp. 247-248, pp. 252-253.

58) 朝鮮總督府, 「朝鮮統計年報」, 各年度.

59) 朝鮮殖産銀行, 「殖産調査月報」38號, 1941.7, pp. 3-4.

60 만~84만의 數字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1940년의 國勢調査에 의하면 한국 전체에서 賃金勞働者로 파악할 수 있는 취업자가 228 만명으로 전체의 25%나 占하고 있으며, 産米増殖計劃의 말기에 20%에 달했던 실업율이 1930년대를 통하여 3~6%수준으로 감소하였다는⁶⁰⁾ 점에서 1930년대후반의 賃金勞働者의 구조적 정착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日帝下의 마지막 통계인 1943년의 조사에서는 工場勞働者 549,751명을 包含하여 광산노동자 토건노동자의 3부분 노동자만 이미 100 만을 넘어서고 있었다.⁶¹⁾

결국 식민지 한국에는 1930년대 중반이후 독점구조형성으로 노자결합이 자본하에 편입, 조정되고 있었고, 광범위한 相對的 過剩人口群이 동시에 독점자본에 의해 예비군으로 유지되

< 表 4 - 6 >

1940 年의 産業別 賃勞働者 (地位別)

單位：千名

産 業	事業者數	家族從事者	被雇備者
農 業	3,087	3,232	366
水 産 業	50	25	61
鑛 業	5	1	171
工 業	74	14	406
商 業	327	67	207
交 通 業	8	1	143
公務自由業	19	2	218
家事業		1	172
기 타	1	2	536
有業者數	3,572	3,344	2,281

* 資料：朝鮮總督府，「朝鮮昭和 15 年國勢調査結果要約」

* 註：일본인이 707 千名이 포함되어 있으나 日本人은 대체로 事業主라는 점과 全體數字를 생각할 때 무시해도 되리라 생각된다.

60) 朝鮮總督府，「調査月報」，1937-1941 年 各號.

61) 朝鮮殖産銀行의 통계와 全錫淡의 통계는 일치하지 않는다. 殖産統計의 증지로 1939 年이후는 全의 통계를 인용할 수 밖에 없다. 朝鮮殖産銀行，「殖産調査月報」38 號，1941.7：金錫淡，앞의 책，p.298.

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直接生産者의 生産手段으로부터의 分離過程과 資金蓄積이 進行되고 窮極的으로 勞動·資本結合을 통하여 本源的 蓄積이 완성되는 고전적 형태와는 다른 後進資本主義의 特徵에 연유하는 바도 크다. 특히 한국의 경우 식민지를 경과하면서 朝鮮後期の 內在的 資金蓄積계기가 崩壞된 후, 이식된 移植資金·資本을 기반으로 生産手段 分離過程이후에 資金蓄積 계기없이 바로 勞資結合過程으로 이어졌고, 移植獨占資本의 構成特質上 그 결합마저 계속 통제되었기 때문에 상대적 過剩人口로서의 광범위한 불안정 취업군이 나타난 것이었다.

植民地下 本源的 蓄積過程은 抑壓된 內在的 本源的 蓄積經驗과 資金本源的 蓄積의 생략이라는 점에서 급속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런 特徵으로 인해 해방후 移植資本이 日本으로 逆流하였을 때 극도의 운전자금부족을 겪게 되었고 따라서 勞動·資本結合의 계속과 勞動再生産의 유지를 위한 적산처리, 農地改革, 대층자금처리 등의 資金本源的 蓄積過程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이다.⁶²⁾

이러한 過剩人口 維持와 병행된 勞資結合으로 인해 海外로의 勞動流出이 계속 일어나고,⁶³⁾ 3차부분은 비정상적으로 팽창하는 가운데 도시와 농촌에는 프롤레타리아트와 전혀 異質의 이 아닌 不安定人口가 누적되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의 暴力은 상부구조적 제영역을 통하여 자본운동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本源的 蓄積의 要素는 식민지하 完結的 構造를 형성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분명 자본주의 사회구성체를 위한 총체적 운동과정인 것이며, 봉건성의 재편과는 이미 그 軌를 달리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V. 맺 음 말

土地調査事業이 直接生産者를 生産手段으로부터 分離시켰다는 일반적 견해와는 달리, 直接生産者가 土地로부터 유리되는 本源的 蓄積의 전기적 과정은 資本의 農村浸透로 象徵되는 產米増植計劃의 實施가 한계를 드러낸 1920년대 말 내지 1930년대 초였다. 이는 1920년대를 통하여 社會的 生産力이 낮은 수준에 있었으므로 農民의 生産手段으로부터의 분리가

62) 日帝의 敗戰이 가시적으로 되었던 해방직전에 일본으로의 기계유출이 유입보다 늘어나며 金 등의 자금과 자본이 본국으로 빠져나감으로 해서, 해방이후 유동자본부족으로 극도의 失業과 가동율 低下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의 해결과정이 農地改革, 대층자금처리, 적산처리로 계속되는 1950년대의 資金本源的 蓄積인 것이다. 본고의 범위상 조선과 해방후는 생략하되, 이대근, 박찬일 등의 기존논의는 이를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해 둔다.

63) 1930년대 해외유출인구는 1,534,734 명으로 20년대에 비해 3배가 넘었다. 金哲, 「韓國의 人口와經濟」, 岩波書店, 1965, pp. 27-41.

바로 勞動·資本結合으로 연결될 수 없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農民들은 地主·小作關係로 農村에 온존되어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독점자본의 한국진출이 본격화된 1930년대 이후 工場生産額이 家內工業生産額을 뚜렷이 압도하는 것은 실질적인 자본지배, 勞資結合의 可能性을 뜻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直接生産者의 프롤레타리아트로의 전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產米增殖計劃에 의한 貧農階層의 大量創出로 형성된 相對的 過剩人口는 1930년대 이후 有機的 構成도가 높고 產業聯關도가 낮은 移植獨占資本의 성격에 의해 유지되면서 資本의 勞動支配構造가 자체적으로 형성되어졌다. 그럼으로써 비록 工業部門의 長期常傭職의 雇傭效果가 정제되었다 하더라도 資本의 能動的 勞動結合이 30년대 중반이후 추진될 수 있었다. 이는 또한 產米增殖計劃의 失敗에 따른 總督府의 적극적인 개입정책과 연결되는 것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植民地 韓國經濟의 급속한 質的變化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물론 植民地에 獨占資本이 들어온다고 해서 곧 이어 本源的 蓄積이 진행되거나 勞動性格과 社會構成體의 性質이 반드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식민지 한국의 경우 식민지 이전 資金本源的 蓄積으로서의 自生的인 資本主義萌芽가 있었다는 점과 1930년에 移植된 獨占資本의 주목표가 단순한 原料나 地金の 獲得만이 아닌 生産物, 資本市場으로서의 성격도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아프리카, 남미 혹은 고전적인 영국의 경우와 분명히 다른 것이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보다 빠른 영태로 本源的 蓄積過程이 資本制的 生産樣式의 진전과 함께 진행되었던 것이다.⁶⁴⁾

한편 18세기 資本主義萌芽로서의 資金本源的 蓄積이 植民地編入으로 失敗함으로써 植民地의 移植資本 형태로 資金本源的 蓄積을 생략한 채, 本源的 蓄積에 있어 國家의 助産婦의 役割이 수반되는 勞·資結合過程을 경과하게 되었다. 이는 1930년대 중반이후의 各種 法律과 인플레이션조장, 총동원령, 기업징비령 등의 국가적 暴力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해방 이후 한국은 본원적 축적의 완성과 再生産構造의 自己完結을 위해 다시 資金本源的 蓄積過程을 거치지 않을 수 없는, 民族經濟의 再編成이라는 限界的 狀況을 필연적으로 맞이 하게 된 것이다. 農地改革, 歸屬財産處理, 對充資金問題와 國家의 철저한 介入이 바로 그 형식이었던 것이다.

이런 속에서 植民地地下 賃勞動의 再生産은 資本의 全體運動過程의 有機的 性格과 資本一般性的의 관철로부터 의도적인 규정을 받는 것이었으며, 그 구체적 계급형성과 함께 矛盾解決

64) 英國의 경우도 本源的 蓄積이 진행되던 16세기부터 資本主義가 시작되었다. K.Marx, op. cit., p. 876.

過程의 형태인 社會運動의 주된 발현형태도 勞働者階級에 의한 勞働運動이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後進資本主義社會의 後期本源的 蓄積의 特殊性和 植民地的 特殊性이 한국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一般的인 本質規定上 植民地下의 勞働者性格은 이미 封建再編의 형태는 분명 아니며 이런 의미에서 식민지하 1920년 말 이후의 實勞働者形成 및 再生産은 資本主義의 本來的 蓄積에 선행하는 토대로서, 朝鮮後期の 本源的 蓄積過程의 계속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출발점으로 해야만이 日帝下 韓國經濟나 勞働·農民運動의 性格科明, 나아가 해방 이후의 發展過程 및 한국경제의 전반이 훨씬 높은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參考資料 및 文獻

1. 京城府, 「京城府産業要覽」, 1932.
2. 京城日報社, 「朝鮮年鑑」, 各年度
3. 堀和生, “日本帝國主義의 植民地支配史試論”, 「日本史研究」, 281號, 日本史研究會, 1986.1.
4. 金秉觀, “日帝下 韓國炭鐵業勞働에 대한 史的研究”, 忠南大, 1987.
5. 金 哲, 「韓國の人口と經濟」, 岩波書店, 1965.
6. 東亞日報社, 東亞日報, 1920-1938.
7. 望月清司, “第三世界研究と本源的 蓄積論”, 「經濟評論」, 1981.12.
8. 朴永九, “産米増殖期の 地帶別, 階層別 農家經濟研究”, 61回 朝鮮近代經濟史研究會, 東京經濟大, 1988.4.
9. 鈴木正文, 「朝鮮經濟の現段階」, 帝國地方行政學會, 1938.
10. 南滿鐵道株式會社, 「朝鮮人勞働者 一般事情」, 1933.
11. 朝鮮農會, 「農家經濟調査」, 京畿道 1分 1930; 慶尙南道 1分, 1931.
12. 朝鮮殖産銀行, 「殖銀調査月報」, 各年各號.
13. 朝鮮鐵道協會, 「朝鮮に於ける勞働者數及び其の分布狀態」, 1929.1.
14. 朝鮮總督府, 「調査月報」, 各年各號
15. _____, 「統計年報」, 各年度
16. _____, 「朝鮮に於ける失業調査」, 1932.
17. _____, 「朝鮮國勢調査報告」, 1930; 同, 1940年分
18. _____, 「工場及鑛山に於ける勞働狀況調査」, 1933.

19. _____, 「會社及工場に於ける労働者の調査」, 1923.
20. _____, 「朝鮮ニ於ケル小作ニ關スル參考事項摘要」, 1934.
21. _____, 「朝鮮鑛工業の趨勢」, 1932.
22. 佐々木寛司, “本源的 蓄積の二類型”, 「歴史評論」, 1985.
23. 海野福壽, “日本型原蓄”, 「講座日本史」5, 歴史學研究會, 1970.
24. S. Amin, Accumulation on a World Scale, Monthly Review Press, N.Y., 1974.
25. K. Marx, Capital, Vol. 1, International Publishers, N. Y., 1977
26. B. Bradby, "The destruction of natural economy," Economy and Society Vol. 4. No. 2, 1975.
27. A.G. Frank, World Accumulation 1492-1789, Macmillan, London, 1978.
28. C. Meillassoux, Maidens, Meal and Money - Capitalism and the Domestic commun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N. Y., 1975.
29. H. Wolpe, "The articulation of Modes of Production", 朴在默 (번역), 「第三世界社會發展論」, 창작과 비평사, 1985.
30. K. Uno,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 Theory of a Purely Capitalist Society, Harvester Press, 1980.
31. I. Wallerstein,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N.Y., 1979.